길림사범대학 외국어학원

훈춘서 '3가지 하향' 애국주의교양활동 전개

20차 당대회 정신 및 향촌 진흥과 다국전자상거래 발전에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지시를 깊이있게 학습, 관철하고 청년학생들이 사회실천 가운데서 교육을 받고 재능을 늘이며 기여를 하도록 한층 더 추동하기 위하여 일전 길림사범대학 외국어학원의 사생들로 구성된 '3가지 하향'(三下乡) 애국주의교양실천팀이 길림성 훈춘시에 심입해 훈춘 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과 방천, 동방제1촌을 둘러싸고 일련의 풍부하고도 다채로운 실천활동을 전개했다.

◎ 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서 새로운 블루오션(蓝海) 탐색

실천팀은 우선 훈춘 동북아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을 찾았다. 현지 고찰과 학습을 통해 다국전자상거래, 향촌관광 및 농촌 발전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과 리해를 높이는 동시에 외국어 전공 우세를 발휘하여 현지 경제 발전과 문화 전파에 힘을 이바지하기 위한데 그 취지를 두었다.

산업원내 기업 책임자들과의 심도있는 교류를 통해 실천팀 성원들은 훈춘 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이 독특한 지리적 위치와 정책적 우세에 힘입어 이미 동북아지역 다국전자상거래에서의 중요한 중추로 발전했음을 알게 되였다. 산업원은 로씨야, 한국, 일본 등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유치하여 다국전자상거래 수출입의 완전한 모델을 실현했다.

실천팀 성원들은 이번 참관학습에서 그들의 외국어 우세를 리용하여 외국인 직원, 외국 고객과 간단한 교류를 가지면서 언어소통 능력과 다문화 교제 능력을 한층 더 련마할 수 있었고 다국전자상거래 업종의 거대한 잠재력과 광활한 전망을 깊이 감수할 수 있었으며 전공 특색과 산업발전을 상호 융합하는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분야에 뛰여들어야겠다는 결심과 신심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그들은 잇달아 표시했다.

◎ 방천서 변강의 풍치 느끼고 홍색유전자 전승

뒤이어 실천팀은 자연풍광이 수려할 뿐만 아니라 풍부한 력사 저력과 홍색문화 자원을 갖춘 방천풍경구를 찾았다. 방천은 중—로—조 3국의 접경지대에 있어 '삼국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곳'으로 꼽힌다. 실천팀 성원들은 룡호각에 올라 멀리 삼국의 풍광을 바라보면서 인류문명의 집합과 만남을 느꼈다.

방천애국주의교양기지에서 실천팀 성원들은 매층마다에 있는 기념관을 참관하고 하나하나의 진귀한 전시품과 생동한 영상자료들을 통해 이 력사의 배후에 있는 이야기와 의의를 깊이 료해했다. 이 속에서 그들은 력사를 명기하고 초심을 잊지 않으면서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힘을 보태리라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 동방제1촌서 민속풍정 체험 향촌 진흥 조력 결심

마지막으로 실천팀은 동방제1촌인 방천촌을 찾았다. 중—로—조 3국 접경에 위치한 이 작은 마을은 독특한 민족건축 문화와 민속촌락 문화로 많은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방천촌에서 실천팀 성원들은 당지 촌민들과 친절하고도 우호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그들의 생산 생활 정황과 향촌 진흥의 실천 경험을 료해했다. 이들은 배운 지식과 기능을 실제 사업에 활용하여 향촌 진흥을 위해 청춘의 힘을 이바지하겠다고 분분히 표시하였다.

이번 '3가지 하향' 사회실천활동은 실천팀 성원들로 하여금 훈춘의 다국전자상거래산업원, 방천, 동방제1촌의 독특한 매력과 발전 잠재력을 깊이 료해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국애향 열정과 향촌 진흥 사업에 뛰여들려는 결심을 불러일으켰다.

/ 길림사범대학 외국어학원 단아함

류학생들 조선족 전통문화와 민속매력 체험

일전 길림성당위 선전부에서 주최한 '중외청년풍채' 행사가 룡정시에서 있었다. 길림성에서 류학하는 여러 나라에서 온 대학생들이 민족문화 공연을 흔상하고 무형문화유산을 체험하는 등 방식으로 조선족 전통문화와 민속매력을 체험했다.

사진은 류학생들이 룡정시문화관 사업일군의 지도 아래 조선족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 장면이다.

/ 한미란 / 길림일보 전문파기자

지능시대의 어문교육, 변화와 초심은?

"열독은 어문교수의 핵심요소이다. 교원은 열독을 많이 하고 잘해야 미래 어문교육의 각종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 학생은 열독할 줄 알고 즐겨 읽어야 새시대의 건설자, 후계자로 성장할 수 있다." 일전 열린 제5회 미명어문교육포럼에서 교육부 통일편찬 중소학교 어문교과서 총주필인 온유민이 한 말이다.

이번 포럼에 북경대학교 교육학원당위 서기 장효려, 북경대학교 중문학과 교수이며 어문교육연구소 소장인 왕봉, 인민교육출판사 부총편집이며 어문교과서 분책 주필인 주우국, 북경제1실험학교 교장 리희귀 등 전문가들이 모여 주제에 초점을 맞춰 깊이있는 담론을 펼쳤다.

지능시대의 도래는 어문교육에 풍부한 자원과 수단을 제공하고 새로운 기술의 응용은 어문교수가 보다 생동감 있고 효과적이며 개성화되게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 기술의 보급이 일련의 도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반드시 똑똑히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장효려는 어문교수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피력했다. 어떻게 기술의 과도한 간섭을 피면하고 교원의 인재 양성 역할을 발휘시킬 것인가? 어떻게 풍부한 정보의 지지하에 학생들의 비판적 사유와 혁신 능력을 양성할 것인가? 어떻게 기술의 쾌속 갱신 속에서 교육의 인문적 온도와 깊이를 유지할 것인가 등에 주목해야 한다.

'지능시대의 어문교육' 보고에서 주우국은 인공지능이 어문교육에 가져오는 심각한 변혁과 영향 및 그 대응 책략에 대해 담론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미래의 어문교육은 정보 선별 및 평가 능력 강화, 집단 열독을 통한 통합적 사유력 양성, 전체 책 열독을 통한 세계관 확립 향상, 개성화된 표달능력 양성 등을 강조해야 한다.

어문교수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리희귀는 여러 경로와 각도로 어떻게 학생들에게 세계를 더 많이 인식하는 창구를 열어주고 학생들의 인지 경계를 넓혀줄 것인가를 담론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첫째, 화면시대에 사진 리해 교육을 중시해 학생들의 다원 시각을 키워주어야 한다. 둘째, 문장과 현실세계를 련결시켜 학생들의 비판사유 능력을 증강해야 한다. 셋째, 학과간 련결을 중시해 여러 학과를 아우르는 사유 능력을 키워줘야 한다.

지능시대 어문교육은 어떻게 미래를 마주해야 할가? 왕봉은 어문의 근본 속성은 적절한 수단으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함과 동시에 교제합작을 완수하는 것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어문교육은 초심과 근본을 지켜야 한다. 지능시대의 '사람-기계-기계-사람' 교제 모식에서 어문교육은 교제 요소의 변화 및 그에 따라 생기는 새로운 기제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어떻게 대세에 따라 행동할 것인가를 연구하고 사고해야만이 진정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미명어문교육포럼은 이미 5회째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북경대학교 어문교육연구소와 북경대학교 교육학원에서 주최했다.

/ 인민넷

연변 화교계 청소년들 고향 발전 실감

최근 연변조선족자치주귀국화교련합회는 조국과 고향의 발전 성과를 느끼게 하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학습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고향을 건설하려는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도록 인도하기 위해 연변적 해외 청소년들을 조직하여 2024 '깊은 고향의 정·함께 고향 이야기 담론'(故里情深·共话乡梓) 견학활동을 펼쳤다. 40명의 연변적 해외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가했다.

지난 7월 30일부터 3일간 펼쳐진 이번 견학활동에서 연변의 화교계 청소년들은 연길시 태흥홍색마을을 참관하면서 연변의 홍색력사를 학습, 료해했다. 또 공룡박물관을 참관하면서 연길 공룡화석 자원과 공룡의 진화 력사를 학습, 료해했으며 훈춘시 경신진 방천촌, 도문통상구에서 연변 변경선의 풍모를 감상하기도 했다. 또한 서예, 활자인쇄, 전지, 전통 미식 제조 등 중화 우수 전통문화를 학습, 체험했다.

연변 화교계 청소년들이 전통 미식 쫑즈 만들기에 여념없다.

견학활동에 참가한 화교계 청소년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고향의 변화 발전을 깊이 느끼고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깊이 료해했다면서 앞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의 전승자, 전파자가 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실천자, 선전자가 되겠다고 표했다.

/ 연변주귀국화교련합회

[눈높이 자녀교육]

사춘기 아이와 공감하고 공명하기

학부모는 응당 어떻게 사춘기 자녀와 지내야 할가?

남경시 금릉회문학교(중학부) 교원 주나는 부모들에게 다음과 같이 충고했다. 사춘기의 아이는 흔히 종잡기 힘들다. 때로는 특히 독립을 원하지만 때로는 또 부모의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한가지 일에 직면하여 그들은 한시기는 대단한 열정을 나타내다가도 또 갑자기 좌절감을 느끼기도 한다.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그들은 심신, 인지, 감정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다.

목전의 그들은 반은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반은 연약한 아이들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자라게 해줌으로써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기꺼운 수용과 인정이 필요하다

"너는 왜 그렇게도 남의 집 아이보다 못하니?", "너는 왜 일을 항상 잘못하니?"… 친애하는 부모님들, 당신이 항상 아이를 비평하고 반박한다면 부모자식 관계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 아이에게 격려의 말을 좀 해보는 것이 좋다. 아이의 조그마한 노력을 보았을 때 당신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나는 너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구나. 나는 네가 자랑스러워." 아이가 일을 망쳤다 해도, 잘못을 저질렀다 해도 "용서할게."라고 말함으로써 아이로 하여금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한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존중과 관심이 필요하다

저명한 시인 지브란은 한 시에서 "당신의 아이는 당신의 아이가 아니다. 아이들은 스스로를 갈망하는 저 위대한 생명의 아들과 딸들이니… 당신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는 있지만 그대들의 생각까지 줄 수는 없다. 그들에겐 그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썼다.

사춘기의 아이는 독립과 자유를 갈망한다. 아이를 당신의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지 말고 아이에 대해 절대적인 권위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고 또 자신의 의지를 아이에게 강요해 아이가 완전히 자신의 생각대로 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한다. 아이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내려놓고 항상 '말을 잘 듣는다'거나 '순종한다'는 표준으로 아이한테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사춘기는 아이의 자아의식이 앙양되는 시기이며 인생에서 두번째 고속발전기로서 자아의식이 갈수록 강해지고 존중받기를, 그리고 독립자주의 공간을 갖기를 갈망한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리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10대 아이의 마음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친절하고 확고하며 존중하는 태도로 먼저 그들 곁에 다가서서 아이로 하여금 리해를 받는 지지 속에서 자존감과 소속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가 실제에 부합되지 않는 생각을 말해도 참을성을 가지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으며 즉시 아이를 부정하지 말아야 한다. 아이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허락해야 한다. 아이가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에는 참을성 있게 진실된 교류를 하고 아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표달할 때면 또 적당한 건의를 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공세적인 태도로 아이를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뜨리지 말고 확고하고도 존중적인 상냥한 태도로 아이와 함께해야 한다.

사춘기 아이는 부모의 공감과 공명의 손길이 필요하다

사춘기 아이의 부모는 아이와 심리적 정서적 공감과 공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시대에 성장한 요즘 아이들의 심리활동과 기대도 인터넷 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들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리해하지 못한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부모는 아이에게 '나는 화가 날지도 모르지만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쨌든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아이가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려 할 때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면서 자신의 사춘기 때의 심리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이 단계에서 아이의 정서와 행위에 대한 부모의 수용, 리해와 포용을 심화할 수 있어 아이와 더욱 잘 소통할 수 있다. 사춘기는 어른이 되기 위한 하나의 통과의례이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인내심 있게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리해하고 그들을 존중하면서 '애벌레가 나비로 변신하는 과정이 있'듯 어른이 되고 또 가장 훌륭한 자신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다.

/ 신화사

안도현 학생들

법원에서 여름방학 연학활동

일전 안도현왕덕태홍군소학교, 안도현동풍학교, 안도현제3중학교, 안도현안림중학교의 160여명 사생들은 안도현인민법원에 가서 여름방학 연학활동을 진행했다.

법원 사업일군의 인솔하에 사생들은 선후로 소송봉사중심, 형사재판정 등 사무장소들을 참관하고 법원의 직책, 소송봉사중심의 사업 절차, 법정 설치, 경찰용 장비의 기능 및 법복, 판사봉과 법원 전용 휘장의 구성과 상징 의의 등에 대해 자세히 료해하면서 법원에 대한 직관적인 인식과 법관의 사업에 대한 인식을 한층 깊이했다.

/ 길림일보